

베니스에서 확장되는 광주비엔날레 '마당'

광주비엔날레재단 출범 30주년 아카이브 특별전 '우리가 되는 곳' 11월 24일까지 221일간 대장정 3개 섹션 통해 역사와 비전 제시

창설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역사를 조망하고 민주, 인권, 공동체 정신의 열린 담론을 제안하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이 베니스 현지에서 221일 대장정에 들어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Madang-Where We Become Us)' 개막식을 지난 18일 오전 11시(베니스 현지 시각) 개최하고 11월 24일까지 221일 간 세계 시민 사회에 '광주정신'을 알린다.

이날 '마당-우리가 되는 곳'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인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 각국 미술계 관계자들은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를 관람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일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Il Giardino Bianco Art Space)에서 마련된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는 광주비엔날레의 차별화된 방향과 광주 정신을 세계 관람객들과 공감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광주비엔날레가 창설 30주년을 맞아 기획한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는 그동안 축적된 아카이브 자료들과 소장품, 그 의미를 확장하는 작품들이 공명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30년 동안 지향해 온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는 '마당'으로서의 여정이 지속되어야 하는 예술의



지난 18일 베니스 지아르디노 비안코 아트 스페이스에서 마련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 개막식 현장 사진.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 제목인 '마당'은 한국어로 '옴뎀이 되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30년 역사 동안 시각 예술을 통해 인류 사회 담론의 장이자 다양한 화두가 발화되는 장으로서 '마당' 역할을 수행해왔듯이 이번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 또한 이러한 광주 정신을 조망하면서 광주비엔날레의 동시대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기획 의도를 두고 있다.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는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마련되었다.

광주비엔날레 역사를 개괄하고 비엔날레의 주요한 변화를 살핀다. 역대 전시 포스터를 포함하여 예술 감독 및 큐레이터 열 팀, 전시 주제, 참여작가 목록, 전시장소를 표기한 지도 등 광주비엔날레가 그동안 구현해 온 열네 번의 전시 '마당'을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시선(Gwangju Biennale, 30 Years of Perspective)'은 기존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기획자와 작가들의 인터뷰로 광주비엔날레의 발자취와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소장품과 그 의미를 확장하는 세 명의 한국 여성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백남준의 '고인돌(Dolmen) (1995)'과 크초(Kcho)의 '잊어버리기 위하여(To Forget) (1995)' 두 작품을 비롯해서 광주비엔날레가 그 시작부터 지향해 온 가치를 작품으로 만날 수 있다.

고인돌 거석 형태로 쌓인 TV와 장독과 같은 한국 전통 오브제가 병치되어 설치된 '고인돌'은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공동체를 기리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는 쿠바

에서 보트로 탈출했던 난민 공동체의 삶을 은유한다. 크초는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일명 '보트 피플'이 남기고 간 뗏목, 타이어, 낡은 배 등 쿠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재료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긴박하고 위험한 탈출과 위태로운 삶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방향을 집약하는 두 작품은 다른 작품과 함께 전시되면서 그 의미가 상호작용하며 광주비엔날레의 지향점인 공동체와 연결된다. 아울러 지난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바 있는 김실비, 김아영, 전소정 세 명의 여성 작가는 영상매체 작품을 통해 각각의 출품작들이 형성하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재창안한다.

김실비 작가의 '빚지지 않는 삶(Unindebted Life) (2021)'은 역사에서 누락된 소수자들에게 노래를 부여하고 빛을 비추고 있으며, 김아영 작가의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Porosity Valley 2: Tricksters' Plot) (2019)'은 데이터의 이주와 난민의 이주를 병치시키면서 지구상의 이주에 대해 재조명한다. 전소정 작가의 '광인들의 배(The Ship of Fools) (2016)' 또한 이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시대 난민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소장 유물로 광주 정신을 보여 주는 '양은함 지박(Tin pot)'도 전시된다. 이 유물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어머니들이 시민군에게 나눠 주기 위해 만든 주먹밥을 담았던 함지박으로 광주 공동체를 상징한다.

세 번째 섹션은 아카이브 섹션으로 광주비엔날레 행보를 담고 있는 소장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전시 포스터, 티켓, 리플릿, VHS, CD, 전시 도면 등의 역사적 실물 자료를 비롯한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주제와 특징적 서사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는 비디오 에세이 '판소리로부터 배우다(Learning from Pansori)'는 19일부터 '마당-우리가 되는 곳' 전시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베니스비엔날레 기간과 연계해 베니스 현지에서 마련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을 통해 다시 한번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221일 개최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공감하고 연대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이 생성되는 의미 있는 전시이자 '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그리운 동심의 세계 '꿈엔들 잊으랴'

국윤미술관 박주하 개인전

국윤미술관은 오는 26일부터 박주하 개인전 '꿈엔들 잊으랴'를 연다. 5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동심 어린 향수의 감흥이 깃든 회화 25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작가는 고향에서 보고 자라온 풍경과 그 곳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아이들의 동심, 향수를 화폭에 담아냈다. 작품에 표현되는 점묘법은 박주하만의 기술로 물감을 섞어 색채를 이용해 오방색을 만들어 낸다. 이는 작가가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화풍으로 다양한 색을 섞어 채도가 올라가는 것을 나이프나

붓을 교묘히 이용해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박주하 작가만의 독창적인 화풍이다.

전시 기간 중 5월 11일과 19일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주하 작가의 작품 해설을 들은 후, 작가의 작품 스타일과 동심을 따라 점묘법을 활용한 마티에르 작품을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당일 오전 10시~12시 진행되며 선착순 15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062-232-7335)로 문의.

국윤미술관은 광주시 동구의재로에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도선인 기자

뷰티산업協, "폐업 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과 뷰티산업협회협동조합이 재창업 예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친고령·뷰티산업분야 전문기술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뷰티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등 전체 6개 과정 각 20명씩 120명으로 조합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재창업과 업종확장을 도울 계획이다. 교육 기간은 디지털융합과 마케팅 등 공통과정 16시간과 두피모발관리(헤드스파), 반영구메이크업, 문제

성네일, 왁싱스킨플레너, 조향사, 재생에너지 등 선택 전문가 과정 24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구성됐다. 기존 전통 운영방식의 소상공인들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공통과정으로 교육하고 선택과정을 통해 업종전환과 확장, 재창업을 위한 전문기술 과정을 교육하도록 설계했다.

모집은 오는 25일까지이며 교육은 5월 2일부터 주 2회 2개월간 진행된다. 희망 리턴패키지와 친고령산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한국예술종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문화누리카드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누리자!

전남문화재단 28일까지

전남문화재단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개최되는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결제 가능한 '임시 가맹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화순 도곡면 효산리-춘양면 대신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군 일대에서 열리는 화순 고인돌 축제에서 문화체험 및 먹거리 부스 17여 개의 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시 가맹점 현황은 전남문화재단 SNS와 전남문화누리 블로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축제는 셋노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핑크빛 대형 조형물(벨리곰)과 먹거리 부스, 피크닉존, 힐링존 등 9가지 스팟이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화순의 먹거리와 함께 추억의 DJ 박스 등 전시, 공연, 문화체험을 누리게 된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의 지원이 되도록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

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인당 연 13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을 위해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다.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도선인 기자

